

# 나주시, 음성권 한옥 지으면 최대 2억 지원

### 천년 목사고를 정체성 확립 위해 전통한옥지구 조성 나서 보조금 1억·용자 1억 시민 참여 독려...원도심 활력 기대

나주시가 천년 목사고를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차별화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선다.

나주시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음성권 전통한옥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해 한옥 건축 시 최대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4년 원도심 내 역사문화자원이 밀집된 음성권 지역을 한옥지구로 지정하고 천년고도 정체성 확립과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옥 건축을 장려해왔으나 그간 실적 부진으로 전통한옥마을 조성 계획에 차질을 빚어왔다.

시는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실질 부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시민들은 한옥 건축에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높은 토지가격과 건축비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지난달 12일 현실 여건에 부합하는 보조금 지원 방안으로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한 '나주시 한옥 지원조례규칙'을 개정·공포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한옥 건축 연면적 85㎡기준, 기존 6500만원이었던 보조금을 1억원까지 변경·지원하며 1%저리 1억 원을 융자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한옥 개보수나 외관 수선도 공사비의 기존 50%에서 70%까지 올렸으며, 이를 통해 전국 지자체 중 한옥 건축과 관련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계가 됐다.



음성권 전통한옥지구 조성사업 조감도.

아울러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의 사전 방지를 위해 보조금 지원 기한을 2025년까지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또 시는 보조금 지원과는 별도로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따라 내년도 '건축자산진흥구역지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한옥

지구에 대한 미래 건축자산 조성 및 한옥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보조금 지원과 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통한옥마을을 조성이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천년고도의 역사문화자원과 나주만의 특색이 담긴 한옥의 공존을 통해 잠재된 원도심에 활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권 전통한옥지구 조성사업 관련 또는 보조금 지원 문의는 나주시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으로 하면 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 다함께 잘사는 나주, 어떻게 만들까

민선 7기 첫 시민원탁회의 열고 원도심·혁신도시 상생 논의



나주시가 민선 7기 들어 첫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해 원도심과 혁신도시 간 지역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최근 시청대회의실에서 시민과 공무원, 청소년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다함께 잘사는 나주, 어떻게 만들어나갈까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원탁회의는 ▲제1 토론 '나주시의 화합과 상생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와 ▲제2 토론 '나주시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놓고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 참여자들은 나주시의 화합과 상생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공동체 의식의 부족(편견과 상호배타적 태도)'과 '상이한 산업구조(교통, 도시인프라)'로 인한 갈등을 지적했다.

또 행정적 지원 미흡, 경제적 이익 추구, 지역 이기주의의 만연 등도 지적됐다.

제2 토론 주제였던 지역 간 균형발전 방안으로는 '도심의 고유 가치를 활용한 인프라 구축 및 새로운 문화산업 활성화'와 '편리하고 원활한 교통체계 전환을 통한 갈등 해소'를 꼽았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

## 나주읍성 문화관광 활성화 2차 사업 개시 금성관 중심 공연·예술·차문화 등 행사 다채

나주시가 원도심 음성권 주요 관광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주시는 원도심 음성권 주요 관광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전시·공연 체험행사인 나주읍성 문화관광활성화 2차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후원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시민예술동아리가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2018년 전라도 정령 천년을 맞아 나주의 대표 관광지인 금성관을 중심으로 공연·예술·공예·차문화 등 남도의 풍류를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1차 사업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금성관에서 열렸던 나주시립국악단의 '천년의 락(樂), 나주풍류열전'으로 민족의 가락, 전통 국악을 기반으로 한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나주를 대표하는 관광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었다.



나주시가 전시와 공연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나주읍성 문화관광활성화 2차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9월까지 매주 토요일 금성관에서 열린 '천년의 락(樂), 나주 풍류열전' 공연 모습. <나주시 제공>

또 음악협회와 연예협회는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재즈밴드, 색소폰, 아코디언, 7080콘서트 공연 등 가수공연을 클래식 공연을 마련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에 앞장서며 사랑을 받았던 풍류열전에 이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2차 문화관광활성화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나주 지역 예술인과 시민동아리 활성화와 관광문화 콘텐츠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 나주소방서, 저소득층 290가구에 소화기·감지기 설치

나주소방서는 화재에 취약한 지역 저소득층 290가구에 소화기·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목표대비 100% 보급·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나주시가 선정한 화재안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나주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이 3개월 간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해 설치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의무적으

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기준에 따라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거주 공간마다 설치해야 한다.

나주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등 화재예방 홍보와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빛가람·영강초교서 찾아가는 가족사랑 인형극 호응

나주시는 최근 빛가람·영강초등학교 대강당에서 학생 47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족사랑 인형극 공연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이번 공연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확신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셋 비밀이예요. 동생이 사라졌어요'라는 제목으로 펼쳐진 공연에서는 말쑥스런 동생이 마냥 귀찮은 주인공 기백이가 3가지 소원 들어주는 지팡이를 얻게 되면서 벌어지는 내용으로 가족의 소중함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는 교훈을 담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딱딱하고 지루한 강의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레크리에이션 형식의 재미있는 인형극 공연이 기대 이상으로 반응이 좋았다"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가교육도 이런 관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 無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광주·목포에서 장지까지 30분거리

### 수목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8-3(4층)  
☎(062)412-2800